

여자배구, 높았던 8강 넷은 꼭 넘는다

러시아에 1-3 아쉬운 패배

내일 아르헨과 조별리그 3차전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러시아를 상대로 연습에 도전했으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A조 2차전에서 러시아에 세트스코어 1-3(23-25 25-23 23-25 14-25)로 패했다.

지난 6일 통쾌한 한·일전 승리를 기세를 올린 한국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실패하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2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이로써 한국은 러시아와 상대 전적에서 7승 45패로 절대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올림픽 무대에서 러시아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만났지만 모두 패했다.

러시아는 평균 키가 186cm로 우리보다 6cm나 더 크고 파워도 뛰어난 팀이다. 세계 랭킹 역시 4위로 한국(9위)보다 다섯 계단이나 앞선다. 한국은 이런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세트를 따내는 등 박빙의 대결을 펼쳤다.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경기였다.

한국은 1세트에서 주포 김연경(타키 페네르바체)의 선전에도 러시아의 '쌍포' 타티야나 코셀레바,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고공스파이크를 막지 못해 어렵게 세트를 내렸다.

2세트에서도 러시아 쪽으로 흘러가던 경기 흐름을 돌려놓은 것은 센터 양효진(현대건설)이었다. 양효진은 2세트 22-23에서 서브가 네트를 맞고 떨어지는 행운이 다른 끝에 서브 에이스로 동점을 만들었다. 양효진이 또 한 번 서브 에이스를 쏴아 넣어 24-23 세트 포인트를 만든 한국은 김희진(IBK기업은행)이 대각 공격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부처는 3세트였다. 한국은 3세트 17-

19에서 양효진의 공격 득점과 서브 에이스로 19-19 균형을 맞췄다. 김연경의 타점 높을 강타로 21-21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으나 러시아의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1-24 세트 포인트에 몰렸다.

한국은 김희진의 이동 공격과 러시아의 공격 범실로 23-24, 1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러시아의 스파이크를 두 차례나 걷어내며 듀스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으나 곤차로바의 3번째 공격은 막아내지 못했다. 고비를 넘지 못하고 또 한 번 어렵게 세트를 내준 한국은 4세트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한국은 김연경이 팀 내 최다인 20점을 올리며 분전했고, 양효진이 서브 에이스 3개를 포함해 17점으로 활약했으나 나란히 22점을 수확한 코셀레바, 곤차로바를 막지 못했다.

러시아를 꺾었다면 8강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었던 한국은 8강 확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한국은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아르헨티나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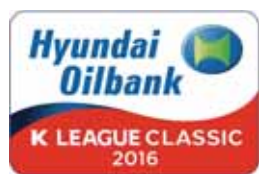
선전을 기약하며 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한국 대 러시아의 경기에서 패한 한국선수들이 퇴장하며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6강 향한 외줄타기

6위 제주와 승점 3점 차

오늘 K리그 인천과 홈경기

아이스크림·맥주 제공 행사



체력을 채운 광주 FC가 승점 사냥을 위해 재시동을 건다.

광주 FC가 열흘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10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2016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한돈의 클래식 무대다. 2위 FC 서울

(12승4무8패·승점 40)를 시작으로 9위 전남 드래곤즈(7승7무9패·승점 28)까지 승점 12차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도, 강등권으로 내려갈 수도.

7승 7무 9패로 승점 28점을 만든 광주는 다득점 원칙에 따라 전남에 앞서 8위에 자리하고 있고, 인천은 5승 8무 10패 승점 23점으로 11위에 위치해 있다.

인천전은 광주의 마지막 자리를 결정할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현재 상위 스플릿 마지막인 6위 제주 유나이티드에 승점 3점 차로 뒤져있다. 강등권인 11위 인천과는 승점 5점 차에 불과하다.

광주가 인천전에서 승리를 한다면 제주를 바짝 추격함과 동시에 인천을 승점

8점 차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반면 패배를 기록할 경우 제주와는 승점 6점 차로 벌어지고, 2점 차로 인천이 바짝 추격을 하게 된다. 패배를 할 경우 당장 하위권 탈출을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체감승점 6점짜리 경기다.

여기에 9위 전남과 10위 수원 삼성이 최근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는 만큼 광주에 이번 경기 승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역시 가장 기대를 모은 선수는 정조국이다. 정조국은 개막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14호 골까지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득점은 물론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공격을 주도하는 만큼 정조국의 역할이 크다.

정조국은 지난 7월 9일 인천과의 맞대

결에서는 혼자 2골을 터트리는 등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좋은 기분을 살려 인천 골문을 겨냥한다.

광주에는 케빈의 공백도 반갑다. 인천의 핵심 공격수인 케빈이 경교능적으로 이번 광주전에 결장한다. 인천의 주 공격 루트이자 무게감이 큰 선수이기에 광주에는 반가운 공백이다.

시원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는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위해 아이스크림과 맥주도 준비했다. 광주는 무더위에 지친 홈경기 관중을 위해 남문 출입구로 입장하는 10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증정한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경품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민혁이 지난달 인천과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동성중,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제패



결승전 휘문중에 9-4 승

동성중 야구부(교장 김병태)가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다.

동성중은 최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끝난 '제46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에서 강호 휘문중을 9-4로 제압하고 대회 정상을 밟았다.

투타자 김건우의 중전안타로 포문을

연 동성중은 상대 실책과 김재우·정해영의 연속 2루타에 힘입어 1회부터 3점을 만들어냈다. 4-4로 맞선 4회말에도 김건우가 선두타자로 나와 안타에 이어 도루를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동성중은 박시원의 내야안타와 최지강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무사 만루 기회에서 김재우와 오승윤의 2루타를 묶어 대거 4점을 뽑는데 성공,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결승전에서 두 개의 2루타를 터트리면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된 김재우가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 ▲최우수상 : 김재우 ▲우수투수상 : 정해영 ▲타격상 : 오승윤 ▲도루상 : 김건우 ▲수훈상 : 최지강 ▲감독상 : 강대성 감독 ▲공로상 : 김병태 교장, ▲지도상 김승동 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제철중, 추계 중등축구연맹전 우승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사장 박세연) 유스 광양제철중이 추계 한국중등연맹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유스 광양제철중은 최근 총복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제52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지역본부(1+2학년 화랑그룹) 결승전에서 신한FC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광양제철중 이재승 감독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다. 아직 고학년부 대회가 남아있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 우승을 지휘한 이재승 감독과 허진욱 코치가 지도자 상을 받았고, 최성진이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선수들, 전광판에 사과문

프로야구 선수들이 승부조작 사건에 사죄의 뜻을 담아 팬 앞에 고개 숙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9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서 경기 시작 직전 전광판에 '승부조작 등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팬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모든 선수가 깨끗한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일동'의 사죄 문구를 송출하고,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에도 열해 야구팬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사죄의 인사를 올리도록 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고, 유창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태양은 경찰 소환조사를 앞뒀고, 마찬가지로 결백을 주장하는 문우람은 현재 군 검찰로 이첩된 상황이다.

이에 선수협은 8일 이호준 회장과 박충식 사무총장, 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에서 승부조작에 팬에게 사죄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